

위풍당당 ... 태극 전사들 결전의 땅 우치 입성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대표팀이 13일 결승전 개최지인 폴란드 우치의 대표팀 숙소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용 감독, 이강인, 오세훈, 조영욱, 이광연. 한국은 16일 새벽 1시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우 '사직 악몽' 지운다



KIA, 롯데 원정 ... 홍건희-터너-이민우 순 선발
지난 4월 9-5 상항서 마운드 올라 역전패
"2군서 정신력·투구 템포 가다듬어...부진 만회할 것"

'호랑이 군단'이 추락의 시작점에서 재도약을 꿈꾼다.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에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지점은 4월 사직 원정이다. KIA는 4월 14일 끝난 문학 원정길에서 한승택의 대타 역전 만루 홈런 등을 앞세워 2승 1무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순위싸움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았다. 기세를 이어 4월 16일 롯데와의 원정 첫 경기에서도 화끈한 화력을 과시했다. 이날 KIA는 0-2로 뒤진 3회초 화력쇼를 펼치며 경기를 단숨에 7-2로 뒤집었다. 하지만 아쉬운 판정과 마운드 난조가 겹치면서 5회말 7실점을 했

고 경기는 9-10 패배로 끝났다. 17일에도 선취점을 지키지 못하고 6-8패. 18일에는 더 충격적인 패배가 남았다. 1-4로 뒤진 채 마지막 9회초 공격에 들어선 KIA는 놀라운 역전극을 펼쳤다. 최형우의 만루포 등이 터지면서 9회초가 끝난 뒤 스코어는 9-4가 됐다. 그리고 앞선 8회 1사 3루에서 등판해 탈삼진 두 개로 이닝을 끝냈던 이민우가 5점 차에서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아웃카운트 3개만 잡으면 되던 승리투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민우가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흔들렸다. 설상가상 급히 마운드에 오른 김

운동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다. 하준영과 문경찬이 투입됐지만 경기는 전준우의 끝내기 희생플라이와 함께 KIA의 9-10 패배로 끝났다. 이후 KIA는 4월 26일 키움전까지 9연패에 빠졌고, 위기관리에 실패한 김기태 감독은 사령탑에서 물러났다.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 이후 7연승까지 내달리기도 했던 KIA는 두산, NC를 상대한 지난 주 다시 1승 5패에 머무는 등 험준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주중 삼성과의 홈 3연전에서 모처럼 승리를 높인 KIA는 주말 '사직 악몽' 탈출에 나선다. 재도약을 노리는 시간, 사직에서 고개를 숙였던 투수 이민우에게도 미안함을 털어낼 기회가 주어진다. 4월 18일 9회 5점의 리드 상황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강판됐던 이민우는 결국 이 경기가 끝난 뒤 2군으로 내려갔었다. 5월 19일 1군으로 복귀했던 이민우는 이번 사직 원정 마지막날 재경비를 위해 맡소된 차명진을

대신해 선발로 나선다. 홍건희와 터너에 이어 이민우로 주말 3연전이 치러지게 되는 만큼 '사직 반전'을 위해 선발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팀은 물론 이민우 개인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는 등판이다. 이민우는 지난 11일 삼성전에서 3이닝을 소화하며 선발 위빙업을 했었다. 이 경기에서 이민우는 안타는 하나 내줬지만 탈삼진은 4개를 뺏아내면서 무실점의 위력적인 피칭을 했다. 이민우는 "지난번에 2군에 내려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했다. 가장 편하게 던질 수 있는 폼을 생각해보고 와인드업을 안 하고 있다. 잡동사리를 빼고 투구 템포를 빠르게 하는 등 변화를 줬다"며 "무엇보다 가운데로 자신 있게 공을 던지려고 한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자신있게 공을 던지게 된다. 스피드도 잘 나오니까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부족했던 모습을 만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민우

덕아웃 T 특특

강민호 만난 김중국 코치 "너 때문에 사인 못 내겠다"

▲그냥 다 강하다고 해 = 마무리가 되어 처음 사직 원정에 나서게 된 문경찬. 그는 지난 4월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김운동이 부상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KIA의 임시 마무리가 된 뒤 현재는 확실한 마무리로 역할을 하고 있다. 문경찬은 "아마 그때 롯데에서 좋은 피칭을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롯데전에 성적이 좋다"고 말했다. "또 어느 팀에 강한 것 같냐"는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하던 문경찬. 옆에 있던 친구 이민우는 "뭘 생각해 그냥 다

강하다고 해. 1점대 평균자책점인데"라면서 웃었다. 올 시즌 문경찬은 11일 삼성전까지 24경기에 나와 1.0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왜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안 던지죠 = 지난 12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박찬호는 안타와 타점을 하나씩 추가했다. 하지만 2회 첫 타석을 생각하면 아쉽다. 2-1로 앞선 2회말 1사 1·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박찬호는 번트 동작을 하고도 초구를 그냥 흘려보냈다. 그러면서 스타트를 끊었던 3루 주자

김선빈이 귀루에 실패하면서 아웃됐다. 2루 볼에 이어 파울로 2볼 1스트라이크. 4구째 높은 볼에 크게 헛스윙을 했던 박찬호는 결국 1루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박찬호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 타이밍인데 왜 스트라이크를 안 던졌는지 모르겠다"면서 씩씩하게 웃은 뒤 "요즘 안타를 치려는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 안 좋은 볼에 손이 많이 나가고 있다. 차분하게 승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인을 못 내겠다 = 13일 KIA 훈련이 끝난

뒤 덕아웃으로 향하던 김중국 코치가 삼성 포수 강민호의 인사를 받았다. 강민호를 본 김 코치는 "너 때문에 사인을 못 내겠다"고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김 코치는 KIA의 공격 시 3루에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코치는 "애들한테 사인을 내려고 하면 민호가 (포수 자리에서) 뻗히 보면서 재촉한다. 사인도 마음대로 못 내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다음 제물은 부천

'K리그2' 16일 홈에서 15경기 연속 무패 도전...기성용 응원 관전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을 끝낸 광주FC가 15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FC1995와 하나원큐 K리그2 2019 15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현재 광주는 K리그 1·2의 유일한 무패 팀으로 K리그 2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선두 유지에 대한 부담과 경고 누적과 부상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서 광주는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보냈다. 부상선수들의 복귀와 컨디션 회복이 가장 고무적이다. 발목과 허리, 등 통증으로 재활에 집중하던 펠리페와 여병훈, 두현석 등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희균과 임민혁 등은 U-22 축구국가대표

팀 소집훈련으로 컨디션을 회복했다. 10월로 리그 득점 1위인 '해결사' 펠리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 5월 12일 부산원정에서 부상을 당하며 고전을 했던 펠리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달 여 만에 홈팬들을 다시 만난다. 광주 중원의 핵심인 여름도 선두 수성을 위한 만반의 체비를 끝냈다. 여름은 좋은 페이스와 움직임으로 중원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팀 내 구심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일 부천 원정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1-0 승리에 마침표를 찍기도 했다. 부천에 강한 여름이 홈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이끌어 낼 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펠리페

한편 이날 광주FC의 홍보대사이자 개인 최대 주주인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이 프리미어리그 휴식기를 맞아 고향팀 경기장을 방문,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축구 멀어진 16강

나이지리아에 0-2 패 자력 진출 어려워... 18일 노르웨이와 조별 3차전

2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대표팀이 한수 아래로 평가받던 나이지리아에게 패스미스 난발과 골결정력 부족 등을 드러내며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12일 밤 프랑스 그르노블의 스타드 데잘프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 2019 FIFA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전반 29분 김도연(현대제철)의 자책골과 후반 30분 아시사트 오소알라의 쉐기골로 0-2로 졌다. 2연패를 당한 대표팀은 16강 자력 진출은 무산됐다. 한국은 지난 프랑스전 교체 투입됐던 '에이스' 이민아(고베 아이카)를 선발로 내세우며 나이지리아를 거세게 몰아부쳤다. 하지만 한국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29분 페널티 라인안에서 수비수 김도연이

걸어내려한 볼이 자신의 오른발을 맞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됐다. 전반 37분 이민아의 패스를 받은 이금민이 이날 경기에서 가장 좋은 찬스를 잡았지만 선수도 없는 빈공간 패스, 허무하게 득점 기회를 날렸다. 한국은 후반 13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장승기의 슈팅이 골키퍼 편칭에 막혀 흘러나오자 이금민이 잡아 골을 성공시켰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골은 무효가 됐다. 경계대상인 오소알라가 후반 30분 단독 드리블로 골키퍼까지 제친 뒤 쉐기골을 넣으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은 오는 18일 새벽 4시 스페인의 스타트 오귀스트-들론에서 노르웨이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